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일본 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마스다가 사용한 접근방식과 지표들을 차용·변용하여 7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청양군 16위, 서천군 24위, 부여군 34위, 태안군 46위이다. 따라서,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지역-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201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이 역전됨

지난 11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은 거의 1:1로 감소하였다. 이 같은 비율변화는 일본의 16년, 미국의 21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이다.

2.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들은 이미 79개에 달함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로 증가하였다. 이런 현상을 수치지도로 확인해 보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의 지역간 격차는 증가

고령인구의 분포는 전국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젊은 여성인구의 분포는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4.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들은 어디일까?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미만(77개)인 지역들의 분포는 수도권과 지방광역대도시 세력이 약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멸위험 지역들의 포위망은 점점 확장될 것이다.

5.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지역들은 어떤 곳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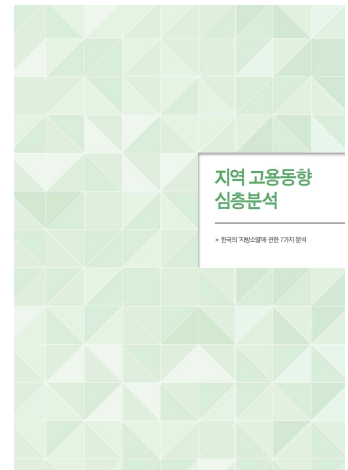
젊은 여성들이 모여들고 있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력권의 신도시들이다.

6. 젊은 여성이 집중된 서울권의 출산율이 가장 낮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젊은 층들이 ‘블랙홀’과 같이 흡수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에서의 경쟁 탓으로 더욱 더 자녀를 낳기 어려운 실정이다.

7. 젊은 여성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률도 높음

소멸위험 지역의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들 때문이며 이런 지역을 제외할 경우 여성 인구 유입(출)은 고용률을 증가(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문 : <http://www.keis.or.kr/>